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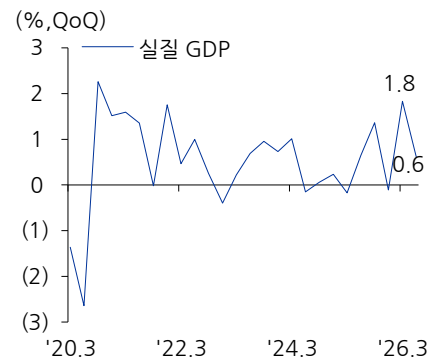
Korea Economy
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
6145/isbang@eugenefn.com

2Q GDP: 기저효과 딛고 +0.6%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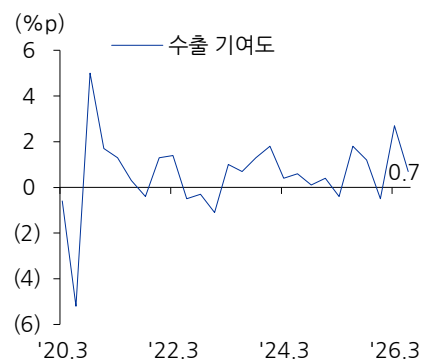
- “ 2026년 2분기 실질 GDP(속보치)는 전기 대비 +0.6% 성장(전년 동기 대비 +3.7%). 1분기(+1.8%)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도 한은 전망치(+0.2%)와 시장 예상(+0.4%)을 상회함. 25년 4분기 역성장(-0.1%) 이후 두 분기 연속 건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감.
- “ 지출 부문별로는 수출이 반도체 등 IT품목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+1.4%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함(수입 +0.8%). 설비투자는 1분기 +6.6% 급증 이후 +0.2%로 둔화된 반면,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+3.3%로 확대. 민간소비는 +0.4%로 완만했으며, 건설투자는 -0.2%로 재차 감소 전환함.
- “ 성장 기여도 기준으로는 수출 +0.7%p, 순수출 +0.3%p로 성장의 절반을 순수출이 담당함. 민간소비 +0.2%p, 총고정투자 +0.2%p로 내수 기여는 제한적이었고, 재고는 -0.2%p로 성장을 끌어내림. 1분기(순수출 +1.1%p)에 이어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가 지속됨.
- “ 2분기 통관 기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+57.3% 급증한 것과 달리 실질 수출은 +1.4%(전 분기대비)에 그침. 금액 급증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P 효과임을 시사함.
- “ AI 서버향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이 국민계정 전반에 반영됨. 삼성 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9.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, HBM·SSD 초과 수요가 이어지며 명목 GDP와 기업이익 중심의 소득 개선이 진행 중임.
- “ 다만 성장의 질적 측면은 1분기 대비 악화됨.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이었던 1분기와 달리, 2분기는 소비 모멘텀 둔화와 건설 부진이 이어지며 수출 편중의 '양극화 성장'이 재부각됨. 민간부문 수요(민간소비+민간투자)는 +1.1%로 회복 흐름은 유지함.
- “ +0.6% 성장은 전망 상회로 긴축 기조를 지지하나, 연속 인상을 강제할 정도의 서프라이즈는 아니라고 판단됨. 실질 GDI 증가분이 가계 임금보다 기업 이익에 집중되어 있어 단기 소비 및 물가 자극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유효함.
- “ 연간 성장률 전망의 향상이 불가피함. 상반기 성장 경로를 감안하면 연간 3.5% 이상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- “ 하반기 리스크는 중동 정세와 유가,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임. 빅테크의 AI Capex 가이드선 상향을 감안하면 반도체 주도 성장세는 3분기까지 유효하다고 판단됨. 다만 건설 부진 등 내수와의 온도차 확대로 양극화 성장은 더욱 심화 가능성이 있음.

2Q GDP 전기비 +0.6% 성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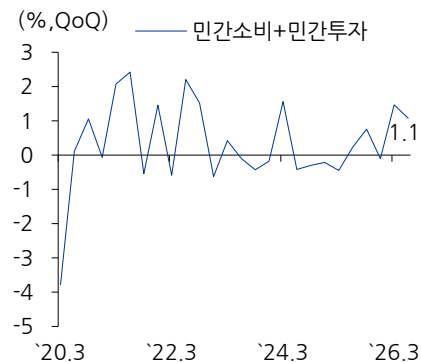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수출 +1.4%, 성장 기여도 +0.7%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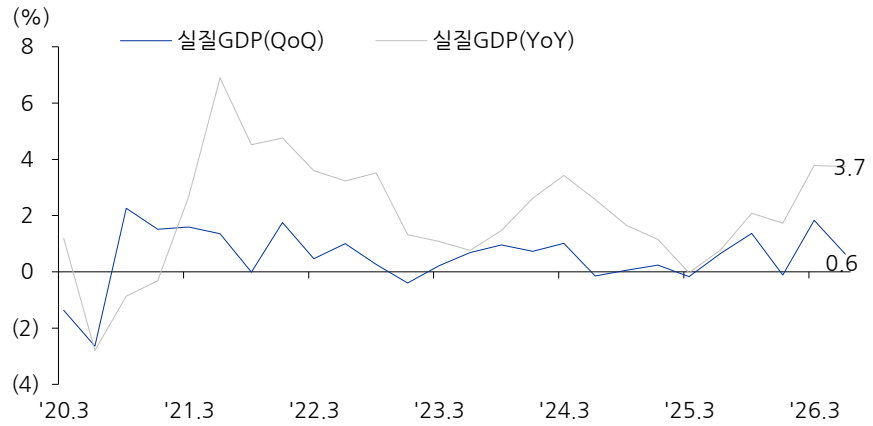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민간부문 수요는 완만한 회복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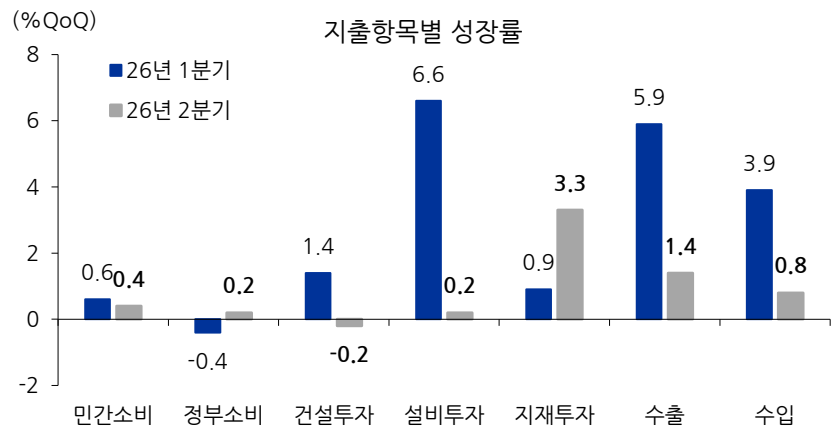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韓 2Q GDP 전기비 +0.6%, 전년동기비 +3.7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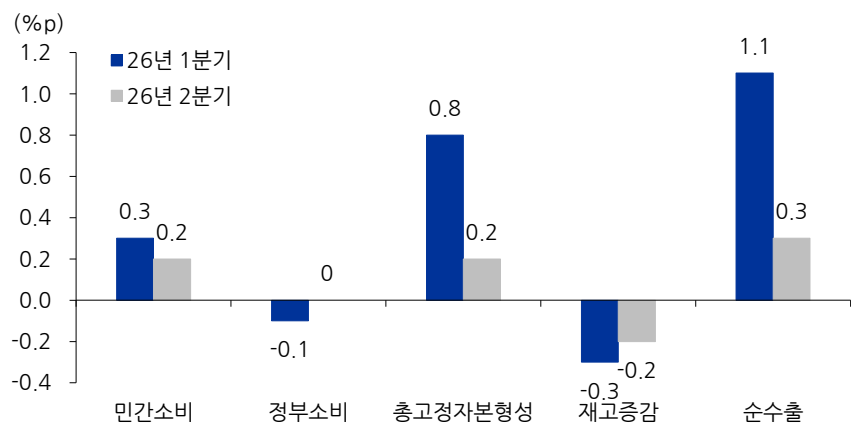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지출항목별 성장률(전기비): 1Q vs 2Q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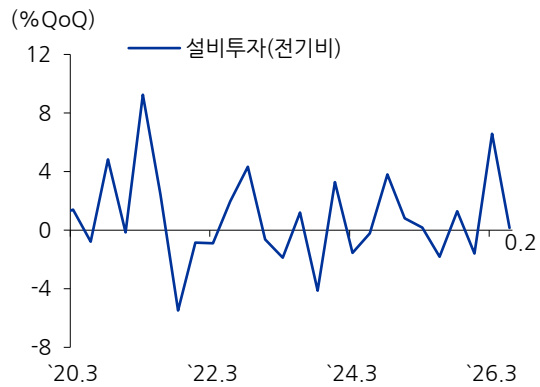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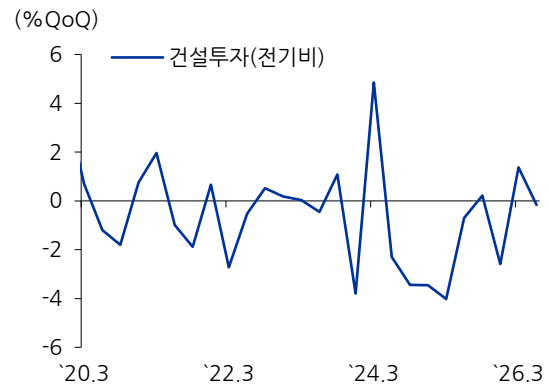
항목별 성장기여도(%p): 순수출이 성장 주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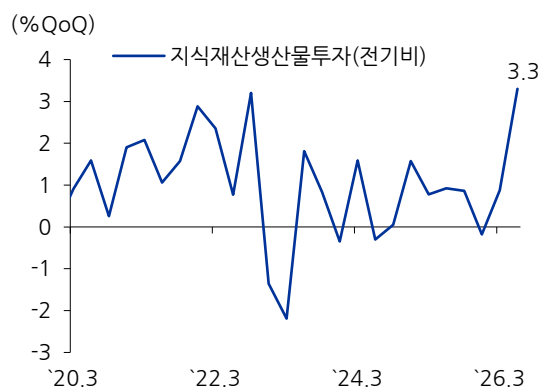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설비투자, 급증 후 숨고르기 +0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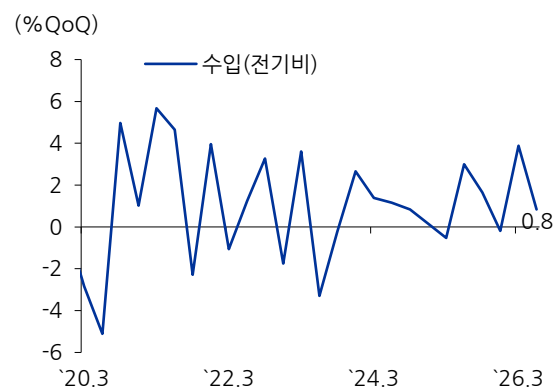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건설투자, 재차 감소 -0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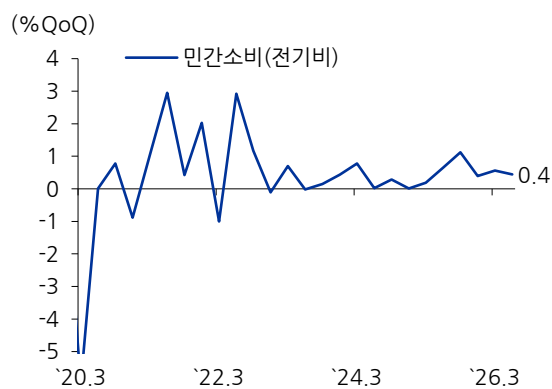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지식재산생산물투자 +3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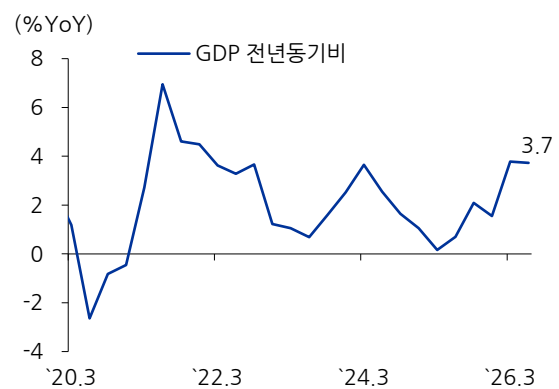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수입 전기비 +0.8%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민간소비 +0.4%로 완만한 증가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GDP 전년동기비 +3.7% 성장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